3-3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와 양 난의 극복>

1: 사대교린의 외교 관계를 맺다

조선의 외교 정책에서 기본이 된 것은 ( )이었다. 명과는 태조 때 ( )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 )준비와 ( )문제 등을 둘러싸고 불편한 적도 있었지만, 태종 이후 양국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조선은 명과 매년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 )을 교환하였고, 그때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의 왕래를 통해 수출된 것은 종이, 마필, 인삼, 화문석 등이었고, 수입된 것은 견직물, 섲거, 약재, 도자기 등이었다. 명에 대한 사대 외교는 왕권의 안정과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 )인 동시에 일종의 ( )이었다.

조선은 영토를 확보하고 국경 지방을 안정시키기 위해 ( )에 대하여 적극적ㅇ니 외교 정책을 펴 나갔다. 태조는 일찍부터 ( )지역을 개척하였고, 세종 때에는 ( )과 ( )을 설치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이후 조선은 여진에 대하여 회유와 토벌의 ( )을 취하였다. 여진족의 ( )을 장려하기 위해 관직, 토지, 주택 등을 주어 우리 주민으로 동화시키거나, ( )와 ( )을 두어 국경무역과 조공무역을 허락하였다. 이러한 교린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진족은 자주 국경을 침입하여 약탈을 자행하였고, 그때마다 조선에서는 군대를 동원하여 이들을 정벌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은 남부 지방의 일부 주민을 대거 북방으로 이주시켜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 지역을 개발하는 ( )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지방의 유력자를 ( )으로 임명하여 민심을 수습하려 하였다.

조선은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교류에는 ( )을 원칙으로 하였다. 고려 말 이래 왜구의 침략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은 ( )을 강화하고, ( )을 개량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였다. 그리하여 세종 때에는 200여 척의 함대를 동원하여 왜구의 소굴인 ( )을 토벌하기도 하였다. 이수 조선의 국력과 국방력이 강화되고, 일본 내의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면서 왜구의 침략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조선은 대마도주가 수시로 토산품을 바치면서 무역을 간청하자 ( )을 맺고 제한된 조공 무역을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 )이 왕래하면서 교역이 이루어졌다. 교역은 ( ), ( ), ( )의 3포에서 이루어졌다. 조선은 일본에 면포, 인삼, 각종 서적 등을 보내 주었는데, 이때 보내 준 면포는 일본인의 의생활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평가될 정도였다.

또한 조선은 시암(태국), 자와 등 동남아시아의 여러나라와도 교류하였다. 이들 나라는 ( )또는 ( )의 형식으로 각종 토산품을 가져와서 옷, 옷감, 문방구 등을 받아갔다. 한편, ( )와의 교역도 활발하였는데, 불경, 유교 경전, 범종, 부채 등을 전해 주어 ( )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16세기에 들어와 조선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일본인의 무역요구가 더욱 늘어난 데 대해 조선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자, 중종때 ( )이나 명종때 ( )같은 소란이 자주 일어났다. 이에 조선은 ( )을 설치하여 대책을 강구하였고, 일본에 사신을 보내 정세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백여 년에 걸친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였다. 국내 통일에 성공한 도요토미는 지방 세력가인 다이묘들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자신의 정복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 )을 감행하였다.

1592년 4월에 약 16만명의 왜군이 9개 부대로 나누어 조선을 침략하였다. 전쟁에 미처 대비하지 못하였던 조선은 전쟁 초기에 왜군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였다. 이에 ( )는 의주로 피란하여 ( )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왜군은 육군이 북상함에 따라 수군이 남해와 황해를 돌아 전쟁 물자를 조달하면서 육군과 합세하려 하였다. 그러나 전라도 지역에서 ( )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 )에서 첫 승리를 거둔 이후 남해안 여러 곳에서 연승을 거두어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이로써 ( )인 전라도 지방을 지키고, 왜구의 침략을 차단할 수 있었다.

한편, 육지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 )이 일어나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조선시대에는 ( ) 에 따라 전쟁이 일어나면 양인 농민은 모두 ( )에 편입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 )이 갑자기 발발하여 군사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농민들은 양반들의 지도하에 ( )이 되어 ( )을 지켜냈다. 이후 전란이 장기화하면서 의병 부대는 ( )에 편입되었고, ( )의 전투능력도 한층 강화되었다.

수군과 의병이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자 조선은 수세에서 벗어나 반격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 의 원군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명 연합군은 ( )을 탈환하였으며, 관군과 백성이 합심하여 ( ) 등에서 적의 대규모 공격을 물리쳤다.

이후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명과 경상도 해안으로 밀려난 왜군 사이에 휴전 협상이 진행되었다. 조선은 ( )을 완전히 축출하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였다. ( ) 을 설치하여 군대의 편제와 훈련 방법을 바꾸었고, ( )을 실시하여 ㅈ방군 편제도 개편하였다. 또한, ( )를 개량하고 ( )도 제작하였다.

3년여에 걸친 명과 일본 사이의 ( ) 이 결렬되자 왜군이 다시 침입해왔다.( ) 그러나 ( ) 이 왜군을 직산에서 격퇴하고 ( )이 적의 수군을 명량에서 대파하자 왜군은 남해안 일대로 다시 후퇴하였다. 전세가 불리해진 왜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본국으로 철수하였다.

왜란은 조선 측의 승리로 끝났다. 일본은 영토를 차지하지도 못하였고, 조선의 항복을 받아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이 입은 손실은 막심하였다.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근과 질병으로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 )과 ( ) 등으로 국가 재정이 궁핍해졌고, 식량도 부족해졌다. 또한, 왜군의 약탈과 방화로 수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고, 수만명의 주민들이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다.

일본은 조선에서 활자, 그림, 서적 등을 약탈해 갔고, 성리학자와 우수한 인쇄공 및 도자기 기술자 등을 포로로 잡아가 일본의 ( )과 (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조선과 일본 사이엥 국교가 재개된 것은 ( ) 이 끝난지 9년뒤인 1607년이다. 조선은 ( ) 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답 겸 ( )를 파견하였으며, 이후 19세기 초까지 ( ) 를 파견하였다.

17세기 초 만주의 여진족은 ( )을 건국하였다. 서쪽으로 세력을 키워가던 ( )은 명에 선전포고하였다. 이에 명은 ( )을 공격하는 한편,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 )은 대내적으로 ( ) 중에 파괴된 산업을 복구하고 문물을 재정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 ) 정책을 폈다. ( ) 때 명의 도움을 받은 조선은 명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새롭게 성장하는 후금과 적대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다. 이에 ( )은 병력을 파견하되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도록 하는 후금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강구하면서 화평을 유지했다.

( )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에 반발하고 ( ) 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를 계기로 ( )은 압록강을 건너 황해도 지역까지 쳐들어왔다가 일단 화의를 맺고 돌아갔다( ) 그후 후금은 국호를 ( )이라 고치고, 조선에 ( ) 을 맺을것을 요구하면서 다시 대군을 이끌고 침입해 왔다.( ) . 인조는 ( ) 으로 피란하여 청군에 맞섰으나, 결국 청에 굴복하고 말았다.

청의 침략은 단기간에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청군의 약탈이 심하였던 데다 패전 뒤 조공액이 늘어남에 따라 조선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 )이후 조선은 청과 표면상 ( )를 맺고 사신이 오가며 교역을 활발하게 하였다. 그러나 오랑캐르 여겼던 청에 굴복하였다는 사실을 치욕스럽게 생각한 사람들은 ( ) 을 추진하기도 하였따.

청에 인질로 잡혀갔다 돌아왕 왕위에 오른 ( )은 청에 반대하는 입자을 강하게 내세웠던 송시열, 송준기, 이완 등을 등용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 )을 준비하였다. 이후 ( ) 때에도 윤휴를 중심으로 북벌 움직임이 제기되었으나 현실적으로 ( )을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조선에서 ( )이 무르익어 가고 있을때, 시베리아 지방에서는 ( )세력이 밀려왔다. 러시아 세력의 침략으로 위협을 느낀 청은 ( )을 파견하고, 아울러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에서는 두 차레에 걸쳐 ( )부대를 출동시켜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이를 ( )이라고 한다.

청은 중국 대륙을 차지지한 후에도 그달의 번고방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일부 주선인 들이 두만강을건너 인삼을 캐거나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청과 ( )이 일어났다. 이에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하고 국경을 확정하여 ( )을 세웠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는 ( )이래 우리의 영토였으나 일본 어민이 자주 이곳을 침범하여 충돌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숙종 때 ( )은 울릉도에 출몰하는 일본 어민들을 쫓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